

時調·歌曲의 文獻 再考

朴 奎 洪

<目 次>

- | | |
|-----------------|-----------------------|
| I. 序 論 | 3. 文獻上的 時調(用語) |
| II. 本 論 | 4. 時調復興運動 以後의 認識과 問題點 |
| 1. 時調와 歌曲 | III. 結 論 |
| 2. 歌集 및 時調의 古樂譜 | |

I. 序 論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려면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時調’라고 지칭하고 있는 우리의 古詩歌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先學들이 發掘・整理해 놓은 이 古詩歌에 관련된 歌集・文集・樂譜 등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認識에 적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本稿에서는 文獻을 통해 認知할 수 있는 몇 가지 問題點을 舉論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발판을 마련코자 한다.

II. 本 論

1. 時調와 歌曲

(1) 現行의 時調와 歌曲

1) 時 調

國文學界에서는 소위 時調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時調唱에 대하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創作되고 있는 現代時調의 경우 이런 경향은 當然할 것이다.

그러나, 詩와 歌가 不可分의 관계에 있었던 소위 古時調의 경우, 音樂的

2 嶺南語文學(第13輯)

인 면을 전혀 무시하고 올바르게 古時調라는 研究對象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울 것이다. ‘時調’가 音樂의인 用語임을 認知한다면 時調의 音樂적인 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러므로 우선 現行의 時調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한다.

時調唱은 다음의 도표와 같이 地域에 따라 크게 京制・嶺制・完制・內浦制로 나누어질 수 있다.

〈표 1〉²¹⁾

—京制	
—嶺制	{ 嶺制(영남지방制)
	{ 半嶺制(영남지방의 制에서 각 지방 보편적인 制를 접한 것)
	{ 完制(全州中心의 完州지방制)
—完制	{ 南制(光州, 羅州지방制)
	{ 靈制(靈光, 茂長지방制)
—內浦制	

서울이나 지방에서 불리는 時調의 唱법은 다양하며, 그것의 分類 또한 다양하다. 다음은 京制와 鄉制(嶺制, 完制, 內浦制)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이다.

① 京制의 分類²²⁾

- ㄱ. 李王職雅樂部 編 朝鮮雅樂大要
 - 平時調(平舉時調)
 - 中히리時調(中學時調)
 - 지름時調(三數時調)
- ㄴ. 咸和鎮 編 增補歌曲源流
 - 中學時調
 - 三數時調
 - 平舉時調
 - 弄時調
- ㄷ. 河圭一
 - 平時調
 - 지름時調
 - 中히리時調
 - 女唱 지름時調
- ㄹ. 林基俊
 - 平時調
 - 지름時調
 - 中히리時調
 - 女唱 지름時調

1) 張師勛, 時調音樂論, 서울대 出版部, 1973, p. 24.

2) _____, 前掲書, pp. 21~26.

- 辭說지름時調(羽調지름時調도 포함) ◦ 首雜歌

ㄱ. 崔相旭(洪元基 同)

- 平時調→平지름時調
- 중허리時調→중허리 지름時調
- 辭說時調→辭說지름時調
- 羽調時調→羽調지름時調
- 女唱 지름時調

ㄴ. 李珠煥

- 平時調→
 - 중허리時調
 - 鄉制平時調
 - 羽調時調
- ↓
- 平지름時調→
 - 女唱 지름時調
 - 辭說지름時調
 - 羽調지름時調
 - 휘모리時調(푸른 山中에,窓 내고자)
- ↓
- 辭說時調→
 - 半辭說時調
 - 휘모리(雜歌)
 - 곰보타령, 병정타령
 - 기생타령, 생매잡아

ㄷ. 金虎成 時調唱의 첫걸음

- 平時調 ◦ 지름時調
- 女唱 지름時調 ◦ 사실時調

② 鄉 制

ㄱ. 李挺舟 時調直解

- 平時調 ◦ 辭說時調 ◦ 지름時調
- 半辭說時調 ◦ 언時調 ◦ 각時調

ㄴ. 鄭炯允

㉞ 朝鮮唱樂譜(1948. 7)

- 平時調 ◦ 辭說時調(주심時調)
- 半刻時調 ◦ 女唱질림 ◦ 男唱질림

㉟ 國樂譜(1955.11)

- 平時調 ◦ 辭說時調 ◦ 弄時調
- 지름억음 ◦ 웃거리時調 등

㊱ 增補註解 時調譜(1970. 9)

- 平時調 ◦ 辭說時調 ◦ 半刻時調
- 男唱叱音(男唱지름) ◦ 女唱叱音 ◦ 半叱音

4 嶺南語文學(第13輯)

- | | | |
|---------|---------|---------|
| ◦ 온叱音 | ◦ 중허리 | ◦ 辭說叱音 |
| ◦ 엇음叱音 | ◦ 刻時調 | ◦ 羽時調 |
| ◦ 羽調叱音 | ◦ 편시조 | ◦ 편사설시조 |
| ◦ 편지름남창 | ◦ 편지름여창 | |

國文學에서는 대개 時調를 平時調・엇時調・辭說時調,³⁾ 혹은 短(型)時調・中(型)時調, 長(型)時調 등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音樂上으로는 실로 다양한 時調의 唱曲들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時調라고 指稱하고 있는 노랫말이 위의 방법만으로 歌唱되는 것은 아니다. 또다른 唱法인 歌曲으로 歌唱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現行의 歌曲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2) 歌 曲

現在 傳唱되고 있는 歌曲은 朴孝寬과 쌍벽을 이루었던 崔守甫에게 師事했던 琴下 河圭一(1867~1937)의 遺音이라고 한다.⁴⁾ 現傳의 歌曲은 男唱 85曲과 女唱 71曲 도합 156曲 및 歌曲 女唱의 唱法을 가진 將進酒가 있다고 하는데,⁵⁾ 하규일이 전승한 歌曲 男唱과 女唱의 種目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男唱⁶⁾

ㄱ. 羽調

- | | | | |
|--------|--------|------|------|
| ◦ 初數大葉 | ◦ 二數大葉 | ◦ 中學 | ◦ 平舉 |
| ◦ 頭舉 | ◦ 三數大葉 | ◦ 騷聳 | ◦ 羽弄 |
| ◦ 羽樂 | ◦ 言樂 | ◦ 羽編 | |

ㄴ. 界面調

- | | | | |
|--------|--------|--------|------|
| ◦ 初數大葉 | ◦ 二數大葉 | ◦ 中學 | ◦ 平舉 |
| ◦ 頭舉 | ◦ 三數大葉 | ◦ 騷聳 | ◦ 言弄 |
| ◦ 平弄 | ◦ 界樂 | ◦ 編數大葉 | ◦ 言編 |

◦ 太平歌

ㄷ. 半羽半界

- | | |
|------|------|
| ◦ 半葉 | ◦ 編樂 |
|------|------|

3) 이名稱이 잘못 命名된 것임을 張師勛님이 『時調學論叢』 創刊號(韓國時調學會 刊, 1985)에 실은 「音樂上으로 본 時調의 形態」에서 지적한 바 있다.

4) 張師勛, 最新 國樂總論, 世光音樂出版社, 1985, p. 429.

5) —, 前揭書, p. 431.

6) —, 前揭書, pp. 429~431.

② 女 唱

ㄱ. 羽 調

- 二數大葉 ◦ 中學 ◦ 平舉 ◦ 頭舉
- 半葉(半羽半界)

ㄴ. 界面調

- 二數大葉 ◦ 中學 ◦ 平舉 ◦ 頭舉
- 平弄 ◦ 羽樂(羽調) ◦ 界樂 ◦ 還界樂(半羽半界)
- 編數大葉 ◦ 太平歌

이런 歌曲은 앞에서 言及한 時調보다 더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요즘 古時調라고 指稱하고 있는 노랫말을 歌唱하던 唱法이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時調로 歌唱되든 歌曲으로 歌唱되든 그 노랫말 모두를 時調로 呼稱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時調’라고 했을 때 歌曲과 다른 음악상의 時調를 지칭하는 경우와 그 노랫말을 지칭하는 경우가 혼동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왜 歌曲 혹은 時調로 歌唱되는 노랫말 모두를 하필이면 時調로 呼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한 解答을 얻기 위해 먼저 歌曲과 時調의 일반적 차이점을 검토한 다음 古文獻을 살펴 그 淵源까지 考察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2) 時調와 歌曲의 差異

李秉岐님이 時調와 歌曲과의 區分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으나,⁷⁾ 그 이후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한 國文學者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時調라고 呼稱하고 있는 노랫말을 歌唱하는 방법으로 時調(唱)뿐만 아니라 歌曲도 있다는 점은 우선 名稱問題로 봐서도 看過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歌曲・진우도>

간밤에 비오드니 석누룻지 다지엿다
 월명정반에 수정림 거러두고
 님형한 집훈수심을 못너슬허 허노라

<詩調・녀청달님>

저건너 일편석은 강터공의 도덕로다

7) 李秉岐, “時調의 發生과 歌曲과의 區分”, 震檀學報 第一卷, 1934.

문왕은 어딴가고 뽕더홀노 나맛논고
석양의 짝일은 갈매기만 오락가락

위의 두 노랫말은 「歌曲寶鑑」(1928)에 실린 것들이다. 國文學者라면 두 작품을 모두 時調라고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詩調”로, 다른 하나는 “歌曲”으로 表記되어 있다. 그렇다면 時調와 歌曲과의 일반적인 차이는 어떤 것일까? 다음의 도표를 보자.

〈표 2〉

8)

〈시 조〉		〈가 곡〉	
		대여음(2장단 5박)	
초장	청산리 벽계수야	초장	
	수이감을 자랑마라	2 장	
2 장	일도 창해하면	3 장	
	다시오기 어려워라		
		중여음(한 장단)	
3 장	명월이	4 장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5 장	
	(생략함) 어떠리		

〈표 2〉를 보면 時調는 3章으로, 歌曲은 5章으로 歌唱되며,⁹⁾ 時調唱에서는 終章終句가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時調와 歌曲은 唱法上 分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現行의 時調와 歌曲은 옛날의 時調나 歌曲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소위 古時調라고 지칭하는 노랫말은 주로 어떻게 歌唱되었을까? 古歌集에서 노랫말 외의 기록들이나, 기타 文獻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2. 歌集 및 時調의 古樂譜

(1) 歌 集

1) 曲名과 連音標

우리는 古歌集에 실린 노랫말들을 時調라고 呼稱하고 있으며, 그런 노랫

8) 張師助, 前掲書, p. 121.

9) 예외의 경우가 있다. 「三竹琴譜」에서는 時調를 五章으로 區分해 놓고 있다.

말이 실린 歌集을 時調集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呼稱할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선 예로서 <三大時調集>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海東歌謠」(周氏本)의 경우를 보자.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歌之風度形容十四條目’이라 하여 14개의 曲名을 쓰고 그 風度와 形容을 말해 놓고 있다.

	(風度)	(形容)
◦ 初中大葉	南薰五絃	行雲流水
◦ 二中大葉	海闊孤帆	平川挾灘
◦ 三中大葉	項羽躍馬	高山放石
◦ 初後庭花	雁叫霜天	草裡驚蛇
◦ 二後庭花	空閨少婦	哀怨悽愴
◦ 初數大葉	長袖善舞	細柳春風
◦ 二數大葉	杏壇說法	雨順風調
◦ 三數大葉	轅門出將	舞刀提賊
◦ 樂時調	堯風湯日	花爛春城
◦ 編樂時調	春秋風雨	楚漢乾坤
◦ 搔聳	暴風驟雨	飛燕橫行
◦ 編搔聳	猛將交戰	用戟如神
◦ 蔓橫	舌戰群儒	變態風雲
◦ 編數大葉	大軍驅來	鼓角齊鳴

여기에서 보이는 曲名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歌曲의 曲名이지 時調의 曲名은 아니다. 「歌曲源流」등 다른 여러 歌集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時調集으로 들 수 있는 몇몇 歌集에서 「調 및 詞」의 경우를 보면 “作品 다음에 <右지름>이란 곳이 두 곳 있고, <此章已上皆지름>(No. 34)이라 한 곳도 있으며 <右사슬>(No. 57)이라 한 곳이 한 군데 보인다.”¹⁰⁾고 하였으니 이는 확실히 時調集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歌集에 기록된 連音標를 봐도 歌集을 時調集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歌曲源流」에 기록된 連音標의 몇 가지이다.

11)

フ : 누르는 표.

ノ : 드는 표.

ㄴ : 눌러 세는 표.

ㄷ : 막내는 표.

10)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世宗文化社, 1972, p. 58.

11) 張師勛, 前掲書, p. 66.

8 嶺南語文學(第13輯)

ユ: 접어드는 표.

) : 연음표(連音標)

レ(シ): 든 흘림표

ミ: 반각(半刻)표

이런 連音標는 歌客들이 소리의 抑揚, 高低, 搖聲, 疾速 등에 관한 부호를 만들어 노랫말 옆에 표시하던 일종의 符號譜이다.¹²⁾ 이것은 곧 歌曲을 위해 만들어진 부호인 것이다.

2) 終章終句와 章區分

앞에서 終章終句의 생략 여부와 章區分에 있어서 時調와 歌曲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이런 기준으로 古歌集들을 검토해 보면 「歷代時調全書」¹³⁾와 「古時調 文獻의 研究」¹⁴⁾에 파악된 60~70년의 歌集中 불과 몇 권이 時調集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時調集이라 할 수 있는 歌集들을 열거해 보면, 「時調」·「調 및 詞」(3章區分)·「詩餘」·「南薰太平歌」(3章區分)·「歌謠」·「시절가」 등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노랫말을 時調라고 呼稱했던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외의 여러 歌集을 時調集이라고 呼稱해야 할 이유는 도무지 없는 것이다.

歌曲集이라 해도 모두 章區分(5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與比賦」·「歌曲源流」(舊皇室本)·「花源樂譜」등에서 5章으로 章區分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朝鮮 末期에 가서는 時調도 점점 流行하게 되어 時調集도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時調集으로 파악한 것들도 모두 이 시기의 歌集들로 추측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最大の 個人歌集이라 할 수 있는 李世輔(1832~1895)의 「風雅」도 수록된 作品들이 모두 終章終句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作品들은 時調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들이라 생각된다. 작품 하나를 인용해 본다.

격모르고 지은 가소 삼백여편 되단말가

눔힐테 못눔히고 낫힐테 못 낫쳤스니

아마도 훗사람의 시비는 못 변힐가 <風雅 416>

20세기 초까지 時調가 많이 歌唱되었던 것은 李世輔의 경우나 歌集 혹은

12) 張師勛, 前掲書, p. 66.

13) 沈載完, 校本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14) 鄭明世,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雜歌集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時調는 時調였고 歌曲은 歌曲이었지 歌曲・時調의 노랫말을 時調라고 한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時調集으로 치칭해 왔던 歌集들은 그 노랫말이나 曲名, 連音表, 分章, 終章終句의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그것들 대부분은 時調集이 아닌 歌曲集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古樂譜를 보면 옛 사람들이 時調란 말에 부여했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3) 時調의 古樂譜

「靑丘永言」・「海東歌謠」・「歌曲源流」 등의 歌集을 時調集이라고 하고, 그 안에 실린 노랫말을 時調라고 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또다른 증거로서 ‘時調’ 혹은 ‘時節歌’로 明示된 古樂譜를 들 수 있다. 그 樂譜들이 수록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林園經濟』 중 「游藝志」: 徐有榘(1764~1845)가纂했다. 「游藝志」卷第六에는 房中樂譜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玄琴字譜・唐琴字譜・洋琴字譜・笙簧字譜의 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중 洋琴字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時調’라題한 악보가 실려 있다.

② 「歐邏鐵絲琴字譜」: 編者 李圭景(1788~?)이翻譯하였다. 歐邏鐵琴字譜는 字義 그대로 歐羅巴의 鐵絲로 된 琴의 字譜라는 말이다.¹⁵⁾ 時調의 樂譜는 「游藝志」洋琴字譜에 있는 것과 同一하며, 역시 末尾에 ‘時調’라 하여 수록되어 있다.

③ 「西琴譜」: 編者・年代 未詳이다. 여기에는 時調長短, 三章時立, 平調 時調女音也, 平調三章時調女音也란 曲名 아래 악보가 있다. 張師勛님은 이를 각각 現行의 平時調, 지름시조, 女唱평시조, 女唱지름시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⁶⁾

④ 「三竹琴譜」: 景宗元年(1721)에 完山人 李升懋가 編한 것. 時調와 騷耳詩調의 樂譜가 있는데, 이는 각각 現행 平時調와 지름시조에 해당한다.¹⁷⁾ 이 琴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騷耳詩調는 3章으로 區分되어 있는 반면, 時調는 5章으로 分되어 있다는 점이다. 張師勛님은 “이와 같은 時調의 分章法을 비롯하여 唱法・長短法 등으로 미루어 보아 時調는 歌曲에서 파생한

15) 國立國樂院 刊, 韓國音樂資料叢書十四, 1984, p.13.

16), 17) 張師勛, 時調音樂論, pp.20~21.

음악이라고 할 것 같다.”¹⁸⁾고 하였다.

⑤ 「歌曲源流」(가람본) : 編者・年代 未詳, 책머리에 ‘時節歌長短’이라 하여 악보(長短點數)가 나와 있다. 3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各章은 “初章二十四點, 二章二十四點, 三章十八點”으로 기록되어 있다.

⑥ 「芳山韓氏琴譜」: 이 琴譜는 韓玆錫의 謄書로서, 그는 玄琴의 大家요 正樂傳習所의 古樂理長이던 金景南의 門下生이라는 점, 이 樂譜는 丙辰(1916年) 5月 12日 昭格洞에 居住하는 그의 樂友 李康協에게 贈與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의 住所는 芳山洞 49番地라는 점 등을 數處에서 밝히고 있다.¹⁹⁾ 끝부분에 ‘時節歌’라 하여 악보를 실고 있다.

이들 樂譜에 나타난 時調는 분명 歌曲과는 다른, 그리고 현행 時調의 古形態가 되는 것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歌曲과 辨別되는 ‘時調’로 明示된 樂曲의 存在를 분명히 확인한 셈이 된다.

그럼 古文獻에 나타나는 ‘時調’라는 用語들은 이런 구체적인 時調樂曲에 실린 노래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歌曲으로 歌唱되는 時調로 歌唱되는 그 노랫말을 지칭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 用語들이 지칭하는 對象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文獻上の 時調(用語)

여태까지 古文獻에 나타나는 時調란 用語를 찾으려는 노력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 用語가 과연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같은 用語일지라도 그것이 지칭하는 對象이 다를 때, 그 用語 出現의 先後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근래 權寧徹님이 時調라는 用語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힌 것은 특히 주목되는 일이었다.²⁰⁾ 時調라는 用語가 자기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文獻에 나타나는 ‘時調’를 자세히 考察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文獻에서 時調란 用語가 보이는 부분을 뽑아 간추린 것이다.

18) 張師勛, 前掲書, p. 15.

19) 國立國樂院 刊, 前掲書, p. 17.

20) 權寧徹, “時調란 成語에 대한 再考”, 韓國詩歌研究,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3, pp. 259~276.

- ① 肅宗朝人 李衡祥의 「樂學拾零」(一名 瓶窩歌曲集) 序文
 ……本朝 梁德壽 作琴譜 稱梁琴新譜 謂之古調 本朝 金聖器 作琴譜 稱漁隱遺譜 謂之時調(麗朝 鄭瓜亭叔譜 與漁隱遺譜同)……
- ② 科試文의 外題
 瓶窩 75서(1727)頃에 科試를 모아서 成冊裝釘한 科試集²¹⁾
- ③ 英祖朝人 申光洙의 「石北集」卷之十 關西樂府 其十五
 初唱聞皆說太眞 至今如恨馬嵬塵
 一殺時調排長短 來自長安李世春
- ④ 正祖朝人 李學達, 「洛下生稿」 觚不觚詩集 感事三十四章
 …誰憐花月夜 時詞正淒懷
 註) 時調 亦名時節歌 皆習巷俚語 曼聲歌之
- ⑤ 蔡濟恭(1720~1799)의 「樊岩集」卷三十二 ‘清蹕子詩稿序’
 …今日余得士矣 其人姓黃 思述其名 貌如玉 兩眸如秋水 袖中出詩若干篇 皆時調也 而其才絕可賞 請業於余 余肯之……又未嘗不爲我誦所作五七言詩 其調清以婉 其色嫵以韶……²²⁾
- ⑥ 「時調百選」(建國大學校 圖書館所藏), 編者未詳의 寫本, 七言律詩 100首²³⁾
- ⑦ 憲宗朝人 漢山居士의 <漢陽歌>
 거상조 낙린후의 한손으로 머리 밧고
 소릭하논 어린기성 娥眉를 반쯤 숙여
 羽詞라 界面이더 春眠曲 處士歌며
 驅鸞이 編樂이더 漁父詞 相思別曲
 黃鷄打令 梅花打令 雜歌 時調 듯기 조타
- ⑧ 哲宗朝人 柳晩恭, 「歲時風謠」
 寶兒一隊太癡狂 截路聯衫小袖裝 時節短歌音調蕩 風冷月白唱三章
 註) 俗歌曰 時節歌
- ⑨ 橘山 李裕元(1814~1888)의 「嘉悟樂府」小樂府序
 民風之日異時變 於斯可見矣 余之所編 今則無人不誦 而如過幾年與古調 縱然有間此時調亦無差等之殊 是古風雅變王之所由作也²⁴⁾
- ⑩ 「學圃琴譜」(編者未詳, 年代未詳, 純宗末~1915로 推定)
 俗樂: 還入屬羽 八難屬徵 相思曲屬宮 處士歌屬角 春眠屬宮商 梅花咏屬商 初酒歌屬徵 時節歌屬界面商也

21) 權寧徹, 前掲 論文, p. 264.

22), 23) 黃忠基, “時調名稱始源新攷”, 語文研究 第21號, 1979, p. 128.

24) 黃忠基, 前掲 論文, p. 135.

⑪ …請時調 厥幾敘容端坐 唱蒼梧山崩湘水絕之句 其聲哀怨悽切 不覺過雲飛塵滿座無不落淚矣 唱時調三章後 續唱羽界面一編 又唱雜歌……

⑫ 「歌曲寶鑑」(1928) 및 기타 雜歌集

위의 경우들은 먼저 크게 두 部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이든, 時調・歌曲의 노랫말을 지칭하는 것이든 우리의 논의와 일단 관계를 가진 경우이다. 둘째는, 첫째와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科試文이라든가 漢詩 등을 지칭한 경우가 되겠다.

우선 둘째의 경우를 위에서 찾아 보면 ①②⑤⑥⑨가 된다. 여기서 ①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다음의 引用文을 보면 곧 첫째의 경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時用大葉 慢中數 皆出於瓜亭三機曲中…(梁琴新譜序)

이는 當時 사용되고 있는 慢・中・數大葉이 모두 鄭瓜亭의 三機曲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慢・中・數大葉은 곧 歌曲의 曲이다. 따라서 ①에서의 “時調”란 노랫말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요,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曲도 아니요, 단지 古調에 대한 時(contemporary)의 調’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마름이다.

다음 첫째의 경우를 성작려 보자.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란 구체적 樂曲 혹은 그 曲에 실린 노래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歌曲이든 時調이든 그 노랫말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③④⑦⑧⑩⑪⑫ 어느 것이든 모두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의 경우이지 노랫말을 지칭하는 경우는 없다.

여태까지 논의를 살펴 보면, 時調란 用語가 ‘時的 調’등의 경우로 사용되기도 한 한편, 歌曲과 분명히 변별되는 ‘時調’라는 구체적인 曲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時調 혹은 歌曲으로歌唱되었던 그 노랫말(長・短歌)을 時調라고 呼稱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더우기 예전 歌妓는 歌曲은 불러도 歌謠와 時調는 부르지 않았으며, 그 까닭은 歌詞와 時調의 唱法은 歌曲의 唱法보다 格調가 낮기 때문이라²⁵⁾고 하는 바에 굳이 時調라는 用語로 그 노랫말 전부를 지칭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混同을 自招하면서까지 노랫말 모두를 時調로 呼稱하게 된 始發點을 추적

25) 張師勛. 河圭一・林基俊, 傳唱 十二歌詞,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0, p. 19.

해 보던 時調復興運動의 주역이었던 六堂을 論及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時調復興運動 이후 時調란 用語는 어떻게 認識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惹起된 問題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4. 時調復興運動 以後의 認識과 問題點

(1) 時調復興運動 이후의 認識

時調復興의 최초의 깃발을 올린 분은 六堂이었다. 1926년 〈朝鮮文壇〉 5월호에 발표한 「朝鮮國民文學으로의 時調」란 論文이 그 본격적인 움직임이었다.²⁶⁾

이렇게 時調復興運動의 先導者였던 六堂이 1926년에 發刊해 낸 『百八煩惱』를 보면 다음과 같은 作品 108首를 볼 수 있다.

궁거워²⁷⁾

위하고 위한구슬
싸고다시 싸노매라,
째뭇고 니싸짐을
넘은아니 탓하셔도,
바칠제 성하옵도록
나는애써 가왜라.

『百八煩惱』에 실린 108首의 作品은 모두 위의 作品과 同一한 形式, 거의 일정한 字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六堂의 序文과 春園・鄭寅普・洪命憲의 跋文이 있는데 모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六堂의 序文과 春園의 跋文 약간을 인용해 본다.

…最初의 時調로 活字에 신세진지 二十三年되는 丙寅해 佛誕日, 無窮花 님히
七分이나 피어난 一覽閣 南窓에서 한샘 〈六堂의 序文에서〉

…大韓留學生會報와 少年과 또 青春雜誌에 國風이라는 題로 發表된 六堂의 數
十篇의 時調는 時調가 新文學으로 再生하는 선소리였것고…

〈春園에 跋文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여기서 볼 때, 六堂이 1906年, 1908年, 1914년에 出刊된 3個誌에 發表한 것은

26) 朴乙洙, 韓國時調文學全史, 成文閣, 1978, p.205.

27) 崔南善의 『百八煩惱』(東光社, 1926)에 실린 첫째 작품.

時調라고 使用하지 않고 國風이라고 呼稱하였고, ……(중략)……詩作品으로서의 時調란 用語는 20世紀初에서 비롯하여 百八煩惱時代인 1926년에 完全히 固定되어 成立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 지적과 같이 이때부터 時調란 詩作品을 지칭하는 用語가 된 것이다. 다시 六堂의 「朝鮮 國民文學으로의 時調」에서의 言及을 보자.

…내던졌든 부시삼지 속에는 나를 좀 보아 주어야지 하는 時調란 것이 이네의 새 注意 주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별것이나 차지낸 것처럼 時調 時調 하는 소리가 文壇에 새 미아리를 일흐켰다. …²⁹⁾

이 상황에서의 時調란, 그 이전 歌曲과 함께 唱法으로 지칭되던 時調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意味로서의 탄생을 뜻한다. 즉 時調란 장르 개념을 갖고 詩作品들을 창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古歌集에 보이는 그런 類의 노랫말들도 모두 時調라고 호칭하고 그것과 함께 실려 있는 長歌(소위 辭說時調)까지도 별다른 장르 개념 없이 時調라 호칭하면서 時調장르의 범주에 넣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分類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字數나 音步 등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多角度로 시도되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류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되고 있다.

時調 (장르)	平時調(短時調・短型時調)
	中時調(中時調・中型時調)
	辭說時調(長時調・長型時調)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2) 問題點

1) 名稱 問題

古樂譜에서도 보았듯이 歌曲과 분명히 辨別되는 時調라는 樂曲이 있었다. 時調라는 일정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時調나 歌曲으로 歌唱되었던 노랫말 모두를 時調라고 호칭한다면 일단 혼동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古文獻에서 노랫말 자체를 時調로 호칭했던 경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時調라는 이름으로 옛 歌集에 있는 노랫말(長・短歌)과 같은 형태의 詩를

28) 權寧徹, 前掲 論文, p.275.

29) 崔南善, “朝鮮 國民文學으로의 時調”, 朝鮮文壇, 1927.

창작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옛날의 노랫말도 새로이 창작되기 시작한 詩(소위 近代時調)를 보는 것과 같은 안목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古歌集에 실린 노랫말들을 모두 時調라고 호칭해 버림으로써 當時 사람들이 사용하던 時調란 말의 의미와 혼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르적으로 봐서 異質의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長歌와 短歌가 하나의 범주(時調장르) 안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장르와 함께 명칭 문제도 재삼 熟考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筆者는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短型時調라고 지칭하고 있는 형태를 先人들이 數百年間 短歌라고 지칭했음을 밝힌 바 있다.³⁰⁾

2) 範疇 問題

古歌集에 실린 노랫말을 모두 時調로 呼稱해버린 탓으로 異質의 長・短歌가 하나의 범주 안에 묶이게 되었다.

辭說時調가 단일 장르로서 時調와는 다른 文學의 장르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논의, 그러니까 소위 短型時調와 長型時調는 별개의 장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³¹⁾ 그리고 近年에 와서도 “사설시조의 구조적 특성과 그 形成過程을 通해 볼 때 사설시조는 평시조문학과는 다른 별개의 文學장르로 취급되어야 하리라 본다.”³²⁾는 등의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두가지를 모두 時調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으레 하나의 장르범주 안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장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이어져야 하겠으나 長・短의 노랫말이 다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短歌는 短歌대로 논의하고 長歌는 長歌대로 分類・整理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³³⁾ 그래야만 현재 어정정하게 취급되고 있는 漁父歌나 感君恩 등이 바로 分類・認識되게 되리라 생각된다.

30) 拙稿, “短歌・長歌・時調 小攷”, 語文學 第47輯, 韓國語文學會, 1986, pp. 26~44.

31) 李能雨, 古詩歌論攷, 宣明文化社, 1966.

32) 羅貞順, “辭說時調의 成立過程 試考”, 梨花語文論攷 第6輯, 1983, p. 133.

33) 拙稿, 前掲 論文.

Ⅱ. 結 論

이상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함으로써 소위 古時調로 지칭하고 있는 노랫말에 대한 우리의 認識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本稿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時調과 歌曲은 같은 노랫말도 終章終句 처리나 分章法 등에서 확실히 변별되는 다른 唱法이다. ‘時調’ 혹은 ‘時節歌’로 明示된 古樂譜에서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라는 구체적 樂曲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時調 혹은 歌曲으로 歌唱된 노랫말 모두를 時調라고 호칭한다면 옛 사람들이 時調란 말에 부여 했던 의미와 혼동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古歌集들을 살펴 본 결과 거기에 실린 노랫말(지금 우리가 時調라고 呼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歌曲으로 歌唱된 것들이지, 그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로 歌唱된 것들이 아님을 알렸다. 時調唱을 위한 노랫말 모음(時調集)은 불과 몇 권에 지나지 않음도 알렸다.

古文獻에 나오는 時調란 用語를 열거하고, 그것을 漢詩를 지칭하는 것 등 지금의 논의와 관계 없는 것과, 관계 있는 것(時調唱曲, 혹은 歌曲·時調의 노랫말)으로 二大別하여 보았다. 관계 있는 경우의 것은 모두 歌曲과 변별되는 時調라는 唱曲, 그 曲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었지 歌曲·時調로 歌唱된 노랫말을 時調라고 지칭했던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古歌集에 실린 노랫말 모두를 時調로 호칭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時調復興運動 이후 時調라는 名稱 아래 주로 옛 短歌를 담은 詩作品들을 창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時調란 용어가 장르 개념 아래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古歌集에서 보이는 노랫말들까지 近代時調를 대하는 것과 같은 안목으로 보게 되었다. 즉, 歌集에 실린 異質의 長歌와 短歌를 모두 時調로 호칭해 버림으로써 으레히 그것들은 하나의 장르 범주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케 된 것이다.

필자가 投稿 「辭說時調의 問題點 考察」(嶺南語文學 第12輯, 1985))과 「短歌·長歌·時調 小攷」(語文學 第47輯, 1986)에서 表明한 주장의 되풀이가 되겠으나, 이상 논의된 것으로 봐서 短歌(소위 短型時調로 지칭되고 있는 형태의 노랫말)는 短歌대로 구분하고, 長歌(소위 長型時調로 지칭되고 있는

형태의 노랫 말)는 長歌대로 分類・整理하는 것이 歌曲 혹은 時調로 歌唱되었던 이들 古詩歌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急先務임을 알 수 있다.

※ 指導를 해 주신 尹榮玉님, 諸資料 閱覽의 도움을 주신 沈載完, 權寧徹, 李東福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